

Aㅏ...--;; 글 엄청많이써놓고 왔는데 임시저장안되가지고 다날렸네요 ----;  
다시쓰는거라 좀 짜증나서 글이 제대로 나올지 --;;  
저이거쓰는데 5시간걸림 스프...

안녕하세요 멘토 치즈입니다 🍷🍷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전에 댓글달기 격려...

요즘 각 주요대학의 최초합격 결과가 나오고있는데요.

대학에 붙어서 기쁜분도 있겠지만 마음에 안들어서 찡찡한 분들도 있을꺼예요.

첫글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양대에서 반수해서 고려대로 왔죠~🐼

그래서 오늘은 제 반수경험을 살려서 반수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려고합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반수시작쪽에 초점을 맞추었고, 학교생활에대해서는 크게 언급안했어요.. 사실 모든걸 다 알아야할필요도없고,... 저도 모르고 갔고...

## 1. 재수 vs 반수



두갈래길.jpg

우선, 재수와 반수중에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거라고 생각해요,,,

재수는 아무래도 공부량이 더 많으니까 성공확률이 더 높고 반수는 심리적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이렇게 고민할 때 어떤점을 생각해봐야하는지 알아볼게요

### ● 성적

성적을 제발 객관적으로 보세요... 막 엄청 망친거같지만 아닙니다. 저도 엄청 망한줄알았더니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반수쪽으로 기울었구요

교육청모의고사는 막강 N수생 빠진 그들만의 리그라서 성적 아예 의미 없습니다.

수능이 평소에비해 얼마나 못봤냐 판단할때는 69월평가원모의, 그리고 수능만 고려하시구요 보통 69월중에서 못본 하나보다도 수능을 약간더 못봤을겁니다.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성적 나온겁니다. 모의보다 수능 잘보는사람? 거의없어요.

모의만큼만 수능때 성적나오면 성공한거예요. 그리고 수능땀 긴장해서 못볼때의 시험을 좀 더 따라잡니다.

이렇게 성적이 평소와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진거면 반수하세요... 그성적 또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더 못볼수도.

그치만 성적이 평소보다 많이 떨어지신거면 재수하세요...  
어짜피 자기기준에서 엄청 낮은대학 가봐야 심리적안정 안들어요... 저도 별로 안들었네요  
그리고, 언수외합 7~8 등급 안되시는 분들도 반수하시면 힘들 수 있습니다.  
개념이 아직 많이 부족하신분들인데, 2 학기때부터 개념다시듣고 문풀까지한다는건...힘들죠

#### ●동기

반수하는동안은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않을 반수동기가 필요합니다.  
저같은경우는 저와 라이벌(?)관계에있던 친구가 수시로 서울대를가서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는  
생각에 열심히 했다는것 같네요..  
그냥 대학불긴불었는데 좀 아쉽고 그렇다고 재수하기는 싫어서 하는 반수..  
술먹으러다니다가 시간다갈지도..

#### ●시간관리능력

반수하실 때 시간관리능력 진짜 중요해요...  
틈틈히 짬나실때마다 공부해야합니다. 계획도 잘 짜셔야하구요...대충 대학생이라고 아침 9 시에  
일어나고 이려면안되고  
아침일찍 일어나서 뭐하고 뭐하고 바쁘게 사셔야해요.  
계획짜놓고 '오늘안되면 내일하지워..'이러시는 분들... 술먹다가 계획 다미룰지도..

#### ●성격

이 게시판의 '운명'과 관련된 부분이네요.  
평소에 성격좋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성격 가지신 분들, 오히려 반수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교가서 동기들이랑 어울리다보면 공부에 많이 방해되고 행사 다 참여하고 이러다보면  
놀러앉을수도 있어요..  
운명적으로 방해되는 성격ㅠㅠ  
제 주변도 성격좋은애들이 학교다닐때는 친구들이랑 놀다가 2 학기에 학원와서 집중해서  
폭풍처럼 몰아치게 공부해야할 때 학원애들이랑 또 어울리는 애들 봤네요..

#### ●학교별 규정

학교별로 1 학기부터 휴학가능, 1 학기금지 2 학기부터휴학가능, 1 학년휴학금지 등 규정이  
다양합니다  
각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학칙을 살펴보세요.  
시립대같이 등록금 싸서 강 돈내고 다니는경우 아니면 중요하겠죠.

### 2. 반수종류

반수에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 ●휴학반수-일반

아마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일꺼예요.. 무난하고....  
1 학기에는 정상적으로 학교생활하고 2 학기에 휴학해서 뽀공하는거예요.  
동기들이랑 잘 지내다가 1 학기 끝날쯤 반수 커밍아웃~ ㅋㅋㅋㅋㅋㅋ (어짜피 말없이  
휴학해도 다알아요.)  
대학물도 좀 먹어보고... 외롭지도않고한 그냥 일반적인..

#### ●휴학반수- 아싸

말그대로 수업은 나가긴하는데 아싸로지내는거예요.  
아싸로지내면 행사같은거 누가 나오라고도 안해서 편하긴해요. 그리고 공부시간확보도되고  
대신 좀 외로울 수 있어요...그리고 솔직히 반수가 돌아올 때 생각도 해야되는데 돌아오면 좀  
문제가되요..  
진짜 평소보다 엄청못봐서 재수하려다가 부모님강요로 들어갔다거나 내가 진짜 웬만해선  
안돌아갈 자신있을 때 하는게..

#### ●휴학반수- 반아싸

막상 제가 한건 저 두개의 중간이라서..이렇게 따로쓰긴했는데 설명하려니까 뭔가 좀 그러네요..

강 적당히적당히하는?? 전 동기들이랑 말도 하고 수업도 나가긴했는데, 학점은 최소학점만 신청하고 행사는 많이 안나갔어요...

그냥 안면만 터놓고 그런거죠... 전 초장부터 반수걸린 특수케이스라 제가 미안해서 동기들이랑 안어울려서요..

사실 적당히라는게 항상어려워서..특수케이스인분들만..추천

#### ●무휴학반수

휴학없이 학교계속다니면서 수능치는거예요.

학교계속다니니까 동기들 모르게 반수할 수 있어서 실패해도 타격이 안크단 장점이 있죠  
그러나 공부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실패확률이 높기때문에 비추합니다;;;;;

남들 1년,반년하는공부를 몇달만에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 ●학교반수

학교는 학사경고를 말합니다.

등록금은 내고 학교를 안나가서 학점이 개판이니까 학사경고 받으면서 반수하는거예요.

사실 반수라기보단 재수에 가깝죠... 안전빵있는 재수?

재수와 반수의 장점만 합해놔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고 봐요... 안전빵있어서 원서때

질러볼수도있고, 실패해도 신입생처럼 하면되니까요.

다만, 집에 여유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요.(사람대가 등록금이 싸서 무휴학반수가 많다는 소리가..)

### 3. 시기별 반수 방법 및 반수경험썰풀이

#### ●2월 - 반수준비

- 반수생들, 대학입학하면 바빠집니다. 2월부터 조금씩 공부해놓읍시다. 인강도 좀

들으시구요...( 자기가 완벽해서 인강필요없다고 생각하진않으시죠?!) 열심히 공부해요~

- 이시기에 수강신청방법 알려주는 오리엔테이션하는데 재량껏 하세요..ㅋ도움은되겠지만 그냥 말만듣고 안올걸요. 술자리추가

- 2박 3일로 어디갔다오는 새터는 아싸반수아니시면 가는게 좋을거같아요... 저는 좀 특수한 케이스라 안가긴했는데.. 저게 친해지는데 중요한듯.

-재중반애들도 첨에 오면 기초개념설명부터 기출분석 할테니까 반수생도 그거합시다

#### ●3~4월 - 신입생으로써, 수험생으로써

-행사 진짜 많은데 눈치살살봐가면서 조절하세요... 놀거다놀고서 공부도잘했으면 벌써 좋은대학갔지 1년더 안함..

-놀러왔을까? 생각들수도.. 행사다니다보면 재밌어서... 그럴땐 반수하게된 동기와 지금 재수학원에서 공부하고있는 친구들을 생각하세요

-시간관리능력이 진짜 중요한때입니다. 행사눈치껏 하시면서 공강틈틈히 도서관가서 공부하세요.

남신경쓰다간 자기공부못하니까 뻔뻔해지세요.. 그리고 솔직히 남한테 신경가지는사람 그렇게 안많음...신경써도 뭐라하는사람없고..

-저같은경우 아침 8~9시부터 학교가서 도서관가서 수능공부하다가 수업듣고 다시 도서관가고 그랬네요. 학교도서관 공부짱잘됨...

-그리고 저는 시간아끼려고 레포트같은거 다 지하철,버스안에서 작성했어욱ㅋㅋㅋㅋㅋ아

그때생각만하면 눈물  

#### ●5~6월 - 새로운준비

-이제 학교+수능생활도 익숙해질무렵... 나태해지지말고 계속 공부합시다.

-어짜피 동기들도 다들 눈치챌테니 반수커밍아웃은 알아서 때워서....

-휴학 후 들어갈 학원 미리 알아봐놓읍시다. 강대같은곳은 미리미리 신청해놔야되니까요.

-중간, 기말고사는 그래도 학점유지 어느정도 하는게... 반수하면서 '난 떨어져도 갈곳이 있으니까' 이런식으로 공부하면 안되지만,

그렇다고 떨어져있을때를 생각 안할수도 없는거니까요. 인간관계도안좋은데

성적도안좋은데.....ㅠㅠ

-휴학은 언제내는지 알아보세요

●1 학기 끝난후

-학원다니냐마냐는 독재 vs 학원재수 고민이랑 비슷한듯. 전 반수생은 당연히 학원다녀야된다고 생각했는데 동기중에 독학해서 온 애가 있어서..ㅋ 역시 될놈될 안될놈안될..운명

- 휴학신청기간에 휴학하세요

-공부 뭐해야하는지는 성적별로 다르니까 따로 언급은 안할게요...

-이제 밀린 EBS 분석을 좀 합시다

4. 기타하고싶은말

-술게임 알아가는게 좋을거같음... 모르고가서 엄청 마시고온 기억이... 대학생이야워 마시면마신거지만 반수생은 담날까지 영향있으면...

-안전빵이 있다는 생각은 원서때만... 공부할땐 재수생같이 철저하게.

-'반수하는거 동기들이 알면 싫어하나?' 라는 질문의 답은 케바케인듯... 아무래도 서성한라인같이 반수생많은 학교들은 좀더 관대하지않을까요... 여대는 막 썩간다그런거같은데 모르겠네요... 다만 좋아하진않겠쎄. 떠날사람인데

-아 그리고 각종 입시사이트에 반수한다고 올린글들 댓글들 다 지우세요. 저 오르비에서 반수글걸려서

2월부터반수걸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글을 읽는 모든 반수생여러분 반수성공하세요 (근데 동기중에 반수하는애 있는거아닐까ㅋㅋㅋㅋ)

=====

이상으로 반수 guide 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있으신분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쪽지는 잘안봐요...

다음주제 추천받음 ㅠㅠ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댓글로 관심좀 데헛 >\_<